치솟는 대출 금리… 커지는 서민 한숨

주택 年 8%·기업 6.93% 6년만에 최고… 금리 경감대책 나와야

3년전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민선(여·41·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요즘 주택담보대출 얘기만 들으면 신경이 곤두선다.

올들어 계속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진데다 3년 거치기간이 끝나 이번달부터는 원금까지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말에 비해 금리가 1%포인트 넘게 올라 1년 사이 늘어난 이자만 100만원에 달하고, 이번달부터 원금까지 상환하려면 월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한숨지었다.

정민경(여·38·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도 한숨짓기는 마찬가지다. 내년 2월 전세계약이 끝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기 위해서는 8천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해야 한다.

정씨는 "전세를 내준 2년 사이 돈을 모아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려 했는데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부족분을 대출받아야 세입자에게 내줄 수 있는 형편이다"며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공행진을 거듭, 걱정이 태산이다"고 말했다.

가지고 있던 돈과 소호대출 5천만원을 합해 지난 9월 음식점을 차린 정영진(45·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도 요즘 이자폭탄에 허리가 휘고 있다.

정씨는 "불경기로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되는 판에 기업대출 금리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앞일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서민들과 기업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이자폭탄에 울고 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적어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이번주 들어 기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8.03%로 외환은행에 이어 두번째로 연 8%대를 넘어서는 등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신규 주택담보대출자들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규모는 광주·전남지역에서만 올들어 11월말 현재 1천332건에 635억원으로 지난해 총 대출액 510억원(1천136건)을 125억원이나 초과했다. 현재 보금자리론(10~30년)의 금리는 연 6.50~6.75%(인터넷 가입시 6.30~6.55%)로 은행권의 변동금리 상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중소기업대출 금리도 급등하고 있어 소규모 상인들의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1개월만에 0.07%포인트가 올라 연 6.93%를 기록해 2001년 10월(6.96%)이후 6년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주택금융공사 정진 광주지사장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꿔타려고 해도 대출금의 2%가량인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대출자들이 많다"며 "은행들이 수수료를 낮추거나 CD 금리와 연동하는 기준금리 적용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백화점 앞에도 자선 냄비 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고객이 백화점 정문앞 안내데스크에 마련된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을 넣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말까지 모금한 성금을 구세군 대한본영에 보낼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수입쌀 국산 둔갑 24개 업체 적발

값이 저렴한 중국쌀이나 미국쌀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상술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만4천289개 수입쌀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4곳에서 위반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수입쌀로 떡이나 김밥을 만들고 재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한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산과 수입쌀을 섞는 방법과 수입쌀의 포장만 바꿔 국산으로 파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도 각각 7건씩 적발됐다. /연합뉴스

유기농업체 학사농장 8~9일 김장축제

유기농산물 생산업체인 학사농장이 유기농 김장축제를 개최한다.

학사농장은 전통 김장문화의 의미를 되살리며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오는 8~9일 제 8회 유기농 김장축제를 열기로 했다.

올 축제는 도시민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광주시 상무지구 학사농장 유기농 타운에서 열리며 무공해 유기농법으로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무, 고춧가루와 양념류 등 전 김장 재료를 유기농산물로 준비할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김장담그기 외 고구마와 밤 구워먹기, 농장직거래 행사 등도 마련된다. 또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 불우이웃돕기에 나서게 된다.

문의 (062)384-6201~3.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보해 나눔 실천

사랑의 봉사단 모집

'보해, 젊은 잎새 사랑 나누미' 봉사단이 5일부터 15일까지 6기 단원을 모집한다.

봉사단은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가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설립한 순수 봉사단체로, 광주·전남북지역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보해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6기 봉사단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 · 전남북지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젊은 잎새 사랑나누미 홈페이지(www.yipselove.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광주 24명, 목포·순천·전주지역 각 7명씩 총 45명으로, 최종 선정자는 오는 19일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문의 (062)370-6270.

/이종태기자 jtlee@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중단

국민銀·농협 한도액 2조 400억원 대부분 소진

우리銀만 정상 대출… 서민 보금자리 마련 비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올 연말까지 잠정 중단돼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비상등이 켜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위탁운용하는 3개 기관중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국민은행과 농협은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이는 올해 편성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액 2조400억원이 대부분 소진되자 정부가 대출 취급을 엄격히 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당초 한도액인 1조7천억원에서 20%를 증액했으나 최근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로 수요가 몰리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11월부터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며 "대출신청만 받고 대출액은 내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액이 1천억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자격요건에 맞게 엄격히 대출을 취급하라고 은행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간소득(급여)이 2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서민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대상 주택은 3억원 이하 주거면적 85㎡ 이하이며 대출금리는 연 5.2%, 대출금액은 최고 1억원이다. /연합뉴스

은행권 금리 상한 대출 상품 개발 박차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중은행들이 금리상한부 대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금리가 껑충 뛴 상황이어서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은 최근 가칭 '금리상한 대출'과 '금리상하한 대출'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달초 출시를 위해 전산개발에 착수했다.

금리상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리를 일정 수준에 상한선을 둬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CD금리가 하락할 경우 대출금리도 동반 하락하는 구조로 돼 있다.

대출 기간은 1~5년으로 다양화했다. 국민은행은 금리상한 대출이 금리위험 헤지를 위한 옵션 매매 비용 때문에 수수료가 비싼 점을 감안해 수수료를 낮춘 금리상하한 대출도 개발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11월 주식거래 큰폭 감소

광주·전남의 지난 11월 주식거래가 전달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5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달 광주전남의 주식 거래량은 5억200만 주로 전달 6억8천800만 주에 비해 27.0%나 감소했고 거래대금도 5조1천900억 원에서 4조2천300억 원으로 18.4%가 줄었다.

이 수치를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전국 평균 감소율(21.7%)보다 5.3% 포인트가, 거래대금도 전국 평균 감소율 15.7%보다 2.7% 포인트가 더 준 것이다.

이같이 주식거래가 감소한 이유로 광주사무소는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 국제 유가상승,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후유증 확산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투자자들에게 불안심리가 퍼진 때문으로 분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농협광주지역본부 대출 3조원 달성탑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오른쪽)가 상호금융 대출금 3조원을 달성, 4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3조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민 조합원과 농업인에 대한 농업자금 지원, 도시민의 생활자금 지원에 힘써온 결과 전년대비 2천140억원이 증가한 대출잔액 3조원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젓갈·수산물시장 개장

오늘부터 수협광주공판장

김장철을 앞두고 광주시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수협광주공판장(장장 박동수)이 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김장용 젓갈과 수산물시장을 개장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안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출하된 새우젓·멸치젓·황석어젓·까나리액젓 등 주요 젓갈류와 석화·생새우 등 김장에 필요한 품목들이 시중보다 1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또 행사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젓갈을 맛볼 수 있는 시식회와 함께 제철미각을 돋울 수 있는 낙지·키조개·꽃게 등 각종 어패류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62)655-9777.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